정보

Johann Sebastian Bach: Cantata “Wachet auf, ruft uns die Stimme”, BWV 140
작곡가: 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
작품명: Cantata “Wachet auf, ruft uns die Stimme”, BWV 140
장르: 독창 ·합창 ·기악을 위한 코랄 칸타타
작곡 시기: 1731년
초연: 1731년 11월 25일, 라이프치히 성 니콜라이 교회, 삼위일체 후 제 27주일
초판 /전승: 19세기 Bach-Gesellschaft-Ausgabe와 이후 비평판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Wachet_auf,_ruft_uns_die_Stimme,_BWV_140

Johann Sebastian Bach의 Wachet auf, ruft uns die Stimme, BWV 140은 1731년 라이프치히에서 예배를 위해 만든 코랄 칸타타다. “깨어나라, 우리를 부르는 목소리 ”라는 제목처럼 밤을 지키는 파수꾼과 신랑의
도착을 노래하며,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독창, 합창, 호른과 오보에, 타이유, 바순, 현악, 통주저음이 약 30분 동안 일곱 악장을 펼친다.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 비유와 「아가」의 신랑 ·신부 이미지를, Philipp Nicolai의 1599년 코랄 세 절과 새로 붙인 대사로 엮은 작품이다.

개요
BWV 140은 바흐의 성악곡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곡 중 하나지만, 가운데 놓인 테너 코랄만 따로 들으면
전체 설계를 놓치기 쉽다. 바흐는 Nicolai의 코랄 “Wachet auf, ruft uns die Stimme”를 첫 악장, 네 번째 악장, 마지막 악장에 배치했다. 세 기둥 사이에 레치타티보와 두 이중창을 끼워 넣어, 잠든 밤의 기다림에서
신랑을 맞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흐름을 만든다.

이 칸타타의 성서적 장면은 마태복음의 비유에서 시작한다.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며 등불을 밝히고, 기름을 준비한 이들만 도착의 순간을 맞는다. 바흐의 시대에 이 이야기는 깨어 있는 믿음과 그리스도의 귀환을
가리키는 비유로 읽혔다. 두 이중창에서는 「아가」의 연인들이 등장하는데 , 소프라노는 기다리는 영혼, 베이스는 신랑이자 예수의 목소리를 맡는다.

예배력과 창작 배경
초연일은 1731년 11월 25일, 라이프치히 성 니콜라이 교회의 삼위일체 후 제 27주일이었다 . 이 주일은
부활절이 이른 해에만 나타나는 드문 예배일이며 , 바흐가 라이프치히에 있던 동안에도 두 번만 돌아왔다. 연말의 마지막 주일에 해당하므로 , 대림절을 앞두고 깨어 기다리라는 복음서의 내용이 예배의 분위기와 맞물린다.

바흐는 이 날의 설교와 성서 읽기를 하나의 음악적 드라마로 바꾸었다. 첫 악장은 멀리서 들려오는 호출과
도시의 각성을 넓은 합창으로 그리고, 중간의 테너 코랄에서는 실제로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한다. 이후 두 이중창은 만남을 기다리는 대화와 이미 이루어진 결합의 노래를 차례로 들려준다. 마지막 코랄은 개인의 대화를 공동체의 찬양으로 돌려놓는다 .

코랄과 텍스트
1·4·7악장에는 Philipp Nicolai가 1599년에 쓴 코랄의 1·2·3절이 각각 쓰였다. Nicolai의 원래 찬송은
파수꾼의 외침, 예루살렘의 깨어남, 신랑을 맞는 행렬을 한 편의 시 안에 담는다. 바흐는 이 세 절을 그대로 반복하는 대신, 각 절에 서로 다른 음악적 옷을 입혀 칸타타의 큰 기둥으로 삼았다.

2·3·5·6악장의 보간시는 작자가 확정되어 있지 않다. 3악장과 6악장의 대사는 「아가」에 나오는 연인들의 언어를 기독교적 신랑 ·신부의 대화로 바꾸며, 2악장과 5악장의 레치타티보는 성서의 장면을 현재의 청중에게 가까이 가져온다. 그래서 이 작품은 오래된 회중 찬송과 당시의 자유로운 시가 번갈아 흐르는 구조를 갖는다.

편성
원래 편성은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독창, 네 성부의 성악 앙상블, 코르노, 오보에 I·II, 타이유, 바순, 바이올린 I·II, 비올라, 비올리노 피콜로, 통주저음이다 . 합창이 필요한 악장과 독창 대화가 필요한 악장이 같은 악기군을 공유하지만 , 음향의 초점은 악장마다 달라진다.

도입부에서는 호른과 오보에, 현악이 넓은 합창을 떠받치고, 3악장에서는 비올리노 피콜로가 높은 음역의 가느다란 선율로 소프라노와 베이스의 대화를 감싼다. 6악장에서는 오보에가 독립적인 노래를 펼친다. 통주저음은 일곱 악장 전체를 이어 주는 바닥이지만 , 어떤 악기 한 대가 모든 순간을 똑같이 맡는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일곱 악장

# 1. 코랄 판타지아 , “Wachet auf, ruft uns die Stimme”

E♭장조의 도입 합창은 장중한 관현악 서주로 문을 연다 . 점음표 리듬이 행렬의 걸음을 만들고 , 소프라노는 코랄 선율을 긴 음가로 노래한다 . 아래 성부와 오케스트라는 그 선율이 멈춘 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 파수꾼의 외침과 잠든 도시의 움직임을 끊임없이 만들어 낸다 .

Bach Choir of Bethlehem은 이 악장을 점음표의 위엄과 소프라노 선율의 지속이 맞물리는 코랄 판타지아로 설명한다 . Bachipedia는 오보에와 현악의 나란한 움직임을 밤의 호출과 응답 , 또는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대비로 들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 어느 한 비유를 악보의 정답으로 고정하기보다 , 여러 층의 움직임 위에 코랄이 길게 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듣는 편이 음악에 가깝다 . 마지막 “Alleluja”에서는 성부와 악기가 빠른 음형으로 솟아오르며 , 깨어남이 긴장보다 환희로 바뀐다 .

# 2. 테너 레치타티보 , “Er kommt”

첫 합창 뒤 테너가 “그가 온다 ”라고 반복하며 장면을 현재로 가져온다 . 파수꾼의 멀리 있는 외침은 이제 한 사람의 목소리가 되어 시온의 딸들을 부른다 . 짧은 레치타티보이지만 , 첫 악장의 넓은 움직임과 다음 이중창의 사적인 대화를 연결하는 경첩과 같다 .

가사는 신랑을 산 위를 뛰는 노루와 어린 사슴에 비유하고 , 혼인 잔치가 가까워졌다고 알린다 . 테너의 말은 서술이라기보다 문을 여는 신호다 . 청자는 아직 신랑을 직접 만나지 않았지만 , 다음 악장에서 그 만남을 기다리는 영혼의 질문을 듣게 된다 .

# 3. 소프라노 ·베이스 이중창 , “Wann kommst du, mein Heil?”

C단조의 이중창에서 소프라노는 영혼의 목소리로 “나의 구원이여 , 언제 오시나요 ?”라고 묻고 , 베이스는 예수의 목소리로 “나는 너의 몫이 되러 온다 ”고 답한다 . 두 성부가 곧바로 하나의 화음으로 합쳐지지 않고 질문과 대답을 되풀이하기 때문에 , 신랑의 도착을 기다리는 시간이 음악 안에 남는다 .

비올리노 피콜로는 일반 바이올린보다 높은 음역에서 가늘고 섬세한 칸틸레나를 연주한다 . 이 선율은 밤의 공기처럼 두 성부 사이를 떠돌며 , 소프라노의 불안한 도약과 베이스의 안정된 응답을 한 공간에 놓는다 . 어두운 조성과 잦은 쉼은 불신을 선언하기보다 , 아직 닫힌 문 앞에서 기다리는 마음을 드러낸다 . 마지막의 “Komm, Jesu”와 “Komm, liebliche Seele”는 서로 다른 목소리가 같은 방향을 향하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

# 4. 테너 코랄 , “Zion hört die Wächter singen”

네 번째 악장은 테너가 코랄 선율을 또렷하게 부르고, 현악이 거의 독립적인 대위 선율로 곁을 달리는 악장이다. 여기서 테너는 제목 그대로 파수꾼의 역할을 맡는다. 앞선 이중창의 질문이 끝나고, 신랑이 실제로 가까이 왔다는 소식이 공동체에 전해진다.

이 선율은 훗날 바흐가 오르간곡으로 편곡해 BWV 645로 남겼다. 오르간 전사가 워낙 유명하지만, 원래 칸타타 안에서는 테너의 인간적인 목소리와 현악의 움직임이 함께 중요하다. 한 성부가 선율을 분명히 제시하는 동안 다른 악기들이 활발하게 흐르므로, 도착은 정지된 선언이 아니라 환영을 준비하는 움직임으로 들린다.

## 5. 베이스 레치타티보, “So geh herein zu mir”

베이스가 “내게로 들어오라”고 노래하며 다음 이중창을 맞이한다. 앞의 테너 레치타티보가 밖에서 들려오는 소식이었다면, 이 악장은 문 안으로 초대하는 말이다. 최고자의 약속을 거창한 명령으로 밀어붙이기보다,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관계를 맺는다.

짧은 레치타티보가 마련한 친밀한 분위기는 6악장의 밝은 조성과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음악은 외부의 밤과 내부의 잔치를 갑자기 갈라놓지 않고, 한 문장을 지나며 공간을 바꾼다.

## 6. 소프라노·베이스 이중창, “Mein Freund ist mein”

두 번째 이중창은 B♭장조로 환해진다. 소프라노와 베이스는 “나의 친구는 나의 것이고 나는 그의 것”이라고 노래하며, 3악장의 질문과 대답을 서로 주고받는 대화에서 함께 기뻐하는 노래로 바꾼다. 오보에 오블리가토가 두 성부 사이를 유연하게 누비고, 성악 선율은 서로의 문장을 받아 이어 간다.

여기서 사랑의 언어는 「아가」의 시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하지만, 음악은 특정 장면을 연극처럼 재현하지 않는다. 부드러운 불협화음이 곧 풀리고, 오보에와 성악의 선율이 한 호흡 안에서 포개지면서 기다림이 성취로 바뀌는 감각을 만든다. 3악장과 6악장을 나란히 들으면 같은 두 인물이 어둠 속의 의문에서 밝은 확신으로 이동한 것을 알 수 있다.

## 7. 코랄, “Gloria sei dir gesungen”

마지막 악장은 Nicolai 코랄의 세 번째 절을 사용한다. 도입 합창처럼 복잡한 판타지아를 펼치지 않고, 회중이 함께 부를 수 있는 선명한 화음과 선율로 칸타타를 닫는다. 소프라노와 높은 악기들이 코랄을 들고, 다른 성부와 악기가 화성을 채운다.

마지막 가사는 신랑을 맞은 뒤의 찬양으로 시선을 돌린다. 앞선 여섯 악장에서 개인의 질문, 파수꾼의 호출, 두 사람의 대화를 거쳤다면, 여기서는 모두가 같은 노래를 부른다. 복잡한 밤의 움직임이 공동체의 안정된

찬양으로 가라앉으며 , 세 번째 코랄 기둥이 작품 전체의 문을 닫는다.

세 코랄 기둥과 가운데의 도착
첫째, 넷째, 일곱째 악장은 같은 코랄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보여 준다. 첫 악장의 소프라노는 긴 선율로
깨어남의 시간을 늘이고, 넷째 악장의 테너는 파수꾼처럼 선율을 또렷하게 전달하며, 마지막 악장은 회중이
공유할 수 있는 화음으로 돌아온다. 같은 찬송이 거대한 환상, 한 사람의 선언, 공동체의 노래로 변하는 셈이다.

그 사이의 네 악장은 하나의 짧은 이야기다. 테너가 도착을 알리고, 영혼이 언제 올지를 묻고, 테너 코랄이 실제 도착을 알리며, 베이스가 안으로 초대한 뒤 만남의 이중창이 열린다. Netherlands Bach Society가 설명하듯 핵심은 칸타타의 정확한 중간에 놓인 네 번째 악장이다. 그곳에서 “신랑이 온다 ”는 말이 더 이상 기대가 아니라 현재의 사건이 된다.

판본과 전승
Bach Digital은 바흐의 자필 자료와 관련 필사본을 D-LEb Thomana 140이라는 기록으로 연결하며, 작품의 비평판으로 1881년 Bach-Gesellschaft-Ausgabe와 Neue Bach-Ausgabe I/27을 제시한다. 여러 판본을 거치며 악보가 널리 유통되었고 , 네 번째 악장의 오르간 편곡 BWV 645도 별도의 인기 레퍼토리로 자리 잡았다.

영어권에서는 첫 코랄의 번역 제목인 “Sleepers, Wake”가 자주 쓰인다. 그러나 이 이름은 칸타타 전체의 독일어 제목을 대신하기보다 , 첫 코랄과 그 오르간 편곡을 가리키는 관용적인 번역으로 이해하는 편이 좋다. 원곡의 흐름을 들을 때는 일곱 악장 전체와 세 코랄의 배치를 함께 보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레코딩
John Eliot Gardiner / Monteverdi Choir / English Baroque Soloists (DG Archiv 463 587-2): BBC Music Magazine은 Gardiner가 도입 합창의 극적 감각과 텍스트의 긴박함을 잘
살린다고 평했다. BWV 147과 함께 수록되어 있어, 바흐의 유명한 코랄 칸타타 두 곡을 한 장에서
비교할 수 있다.
Masaaki Suzuki / Bach Collegium Japan (BIS-SACD-1981): MusicWeb International에 따르면 BWV 140은 26분 9초로 수록되어 있다. 평론은 Suzuki의 해석을 Gardiner보다 부드럽고
절제된 방향으로 묘사한다. 도입 합창의 장중함보다 독창 사이의 대화와 투명한 악기 결을 가까이
듣고 싶을 때 참고할 만한 녹음이다.
Jos van Veldhoven / Netherlands Bach Society, 2018년 공연 영상: 암스테르담 왈롱 교회에서 촬영된 All of Bach 영상은 약 29분의 공연으로 일곱 악장을 모두 담는다. 화면을 통해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의 대화와 비올리노 피콜로, 오보에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자료

Bach Digital, BWV 140: 초연 장소 ·일자, 원자료, 편성, 판본, BWV 645와의 관계.
Bachipedia, Wachet auf, ruft uns die Stimme: 악장별 텍스트 ·편성 ·코랄 구조와 음향 해설. Netherlands Bach Society, BWV 140: Jos van Veldhoven 공연 영상, 일곱 악장 순서, 성서적
배경과 가사.
Bach Choir of Bethlehem, Cantata BWV 140: 27번째 삼위일체 후 주일의 예배력, 세 코랄
악장의 짜임과 악보 안내.
BBC Music Magazine, Bach: Cantatas: Gardiner·Monteverdi Choir·English Baroque Soloists 음반 평.
MusicWeb International, BACH Cantatas v52: Suzuki·Bach Collegium Japan 음반의 수록
시간과 해석 평.
Bach-Cantatas.com, BWV 140: 악장별 텍스트 ·작곡 및 초연 정보, 악보 ·판본 보조 자료.

Revision #1
Created 2026-10-04 10:11:33 UTC by 안준영
Updated 2026-10-04 10:11:33 UTC by 안준영